

# 광양익신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열처리·용접 특화업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 기대 에너지·환경 공동 활용 시설 구축으로 산단 개발 탄력

광양시의 미래발전 견인할 익신일반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개발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익신일반 산단 32만 2875㎡가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뿌리산업은 열처리, 용접, 주조, 금형, 표면처리, 소성 가공 등 6개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환경규제와 입지문제, 에너지 비용 문제 등에 뿌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또 뿌리기업이 집적돼 있거나 집적예정인 산업단지 중 우수단지를 지정해 환경시설, 에너지시설 등 공동 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광양시는 민선 6기들이 이 같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집중 육성한 끝에 이번 특화단지 지정 개발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응모해 현지실사와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결정됐다.  
현재 광양시는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부품 제조기업 업체가 140곳이나 있지만 주조, 열처리 등 연관 기업체가 부족해 2차 가공 시 타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산업단지 개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7개 금속가공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뿌리산업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진호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장은 "이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특화단지 내에 열처리 공정 지원, 열처리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에너지 및 폐열 회수 시스템, 금속 가공 폐부산물 회수 등 공동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익신일반산단은 물론 초남공단, 신금일반산단 등 22개소의 산업용지도 활성화돼 광양시가 최고의 투자환경을 가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익신일반산단에는 현재 열처리, 용접,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승합차 기증에 감사 편지·그림 훈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광양제철에 전달

광양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최근 승합차를 기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에 따르면 최근 승합차량을 기증한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광양제철소에 전했다. 아이들은 편지에 직접 그린 그림과 예쁜 손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승합차를 옥룡면, 덕래리, 광양을 지역아동센터에 각 1대씩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에서 "예전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 탈 때마다 불안했는데, 새 차를 주셔서 체험활동도 안전

하게 다닐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커서 아저씨들을 반반 아 사회에 기부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가 각 센터에 전달한 차량은 포스코 월드프리미엄(World Premium) 고급도장관을 100% 사용한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투리스모 3대로 총 8800만원 상당이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매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33대의 차량(승합차 15대, 장애인 리프트 차량 12대, 승용차 5대, 버스 1대)을 광양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포스코1% 나눔 재단에서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이동식 세탁차량 1대를 광양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오늘 '광양시민의 날' 행사 문화공연·전시회 등 다채 '아이 양육 좋은 도시' 선포도

광양시는 "7일 오전 10시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시민 대화합 '제22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열리는 육외행사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다.  
광양지역 12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개막식에는 광양시립국악단 취타대를 선두로 선수단 입장식, 시민의 상 시상식, 시립예술단 공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선언 퍼포먼스와 시민화합 한마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시민의 상은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문순포(제)광양시사립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이 받는다.  
시민의 날 부대행사는 '제24회 분재 전시회'(6~8일·광양시청), '제21회 광양시 연합사진전'(8~12일·문화예술회관), '제15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6~9일·서천면 체육공원) 등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특히 8일 오후 7시 광양을 사전체육공원에서는 민중시인 운동주를 기리는 '동주! 토코콘서트'가 이준의 감독을 비롯한 이창호 감독, 노지영 평론가, 가수 윤형주, 바리톤 전병곤이 출연한 가운데 '영원한 청년 운동주! 음악으로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문수 광양시 문화관광과장은 "육외 시민의 날은 체육행사를 비롯한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구봉산 전망대



광양역사문화관



정병옥 가옥

### 광양 구석구석 돌아볼까...시티투어버스 타고 가을속으로

#### 내달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행

오는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양시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광양시 시티투어 버스'가 인가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는 광양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오전 9시 10분 광양버스터미널을 거쳐 9시 35분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첫 광양투어를 시작한다. 승차권은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에서 사전 예매하면 된다. 잔여 좌석에 한해서는 예매 없이 현장 탑승도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기준 광주 9900원, 광양 2000원이며, 어린이는 광주 5000원, 광양 1000원이다.  
투어버스 운행 노선은 백운산권, 섬진강권 2개 노선으로 나뉘며 1·3·5주 토요일은 백운산권 운행으로 광양제철소-구봉산전망대-장도박물관-백운산유양림-옥룡사지-역사문화관/광양5일장을 여행한다.  
2·4주 토요일 운행하는 섬진강권은 광양제철소-김시식지-정병옥 가옥-매화



광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광양시티투어버스에 오르고 있다. <광양시 제공>  
마을-느랭이골 자연리조트-구봉산전망대/옥곡5일장을 구경할 수 있다.  
최근 광양시티투어 버스를 탄 광양중마초 이승희 학생은 "광양제철소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며 그동안 궁금했던 호기심을 풀 수 있었다"면서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이순신장군 유적을 설명 듣고, 유당공원, 장도박물관, 역사문화관, 옥룡사 동백나무 숲, 백운산유양림에서 너무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문수 광양시 문화관광과장은 "광양 시티투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유익한 가을여행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 광양제철 외주사 (주)동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인 (주)동후가 '2016년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동후는 지난해에도 '전남도 10대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대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주)동후 김용수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CEO의 의지, 창조경제를 통한 기업성장, 노사협력과 적극적인 투자,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 청년층 취업 적극 수용,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사회적 책임 등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선정해 표창했다. (주)동후는 광양제철소 후판부 외주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청년층 채용에 적극 앞장선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후는 현재 종업원 390명 중 198명이 34세 미만인 청년층으로 전체 직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수 대표이사는 "광양제철소가 세계 최고품질인 후판 2기 증설사업의 외주업무를 동후에 맡겨준 덕분에 채용 시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해 청년층을 우선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율 10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후는 지난해 포스코 외주사 최초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 항구적노사평화선언 및 임금 영구 무교섭 위임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과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성황리 분양중

SH BUILDING

남구 빛고을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산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도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고객가치**

문의 062) 676-4006 / 010-5681-4015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0.2%의 1% 912 후원금)

계약금 5%로 내집마련 (0.2%의 1% 912 후원금)

분양문의 351-4610 (062)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